

# 우즈, 이번주 세계 1위 탈환 노린다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출전

단일대회 최다우승 기록도 도전

전성기로 돌아온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두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PGA 투어 단일대회 최다 우승 타이기록과 세계랭킹 1위 탈환이 이번주 대회에 출전하는 우즈의 목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파72·7419야드)에서 개막하는 이 대회는 우즈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텃밭'이다.

'골프의 전설' 파머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우즈는 일곱 차례나 우승했다. 우즈는 2000년 대회에서 첫 우승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한동안 이 대회와 우승 인연이 없던 우즈는 2008년과

## ■ 남자골프 세계랭킹(20일현재)

순위	선수(국적)	점수
1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11.50
2	타이거 우즈(미국)	10.35
3	루크 도널드(영국)	7.16
4	브랜트 스니데커(미국)	6.47
5	제스틴 로즈(영국)	6.44

2009년에 다시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에도 다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다. 우즈가 올해에도 우승하면 PGA 투어 단일 대회 최다 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룬다. 지금까지 최다 우승 기록은 샘 스니드(미국)가 그린즈버러 오픈에서 세운 8회 우승이다.

우즈는 시즌 파마스 인슈러언스 오픈과 캐딜락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2009년 색스 스캔들이 터진 이후 무너진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증명했다. 특히 세계 강호들이 총출동한 캐딜락 대회에서는 1~4라

운드 동안 퍼트수를 단 100개만 기록하는 실력을 뽐냈다.

우즈가 아널드 파머 대회에서 우승하면 2010년 11월1일자 랭킹에서 내줬던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18일자로 발표된 세계 골프랭킹에서 우즈는 10.35점으로 2위에 올라 1위로 매길로이(북아일랜드·11.50점)를 간발의 차로 쫓고 있다.

더욱이 매길로이가 이번 주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우즈의 1위 탈환이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오랜 라이벌 필 미켈슨(미국), 어니 엘스(남아공)가 경제에 나선다. 미켈슨은 피닉스 오픈에서 '와이어투웨이어' 우승을 차지하는 절정의 삶을 과시했다.

한국계 선수 중에는 최경주(43·SK텔레콤), 위창수(41·태일러메이드), 배상문(27·캘러웨이), 노승열(22·나이키골프), 케빈 나(30·타이틀리스트), 존 허(23), 제임스 한(32) 7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 우즈 "스키 스타 린지와 사귄다" ... 열애 인정

타이거 우즈(38)가 미녀 스키스타인 린지 본(29)과의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USA 투데이가 보도했다.

우즈는 이날 페이스북에 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공개하는 글을 남겼고, 본도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즈는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 밖에서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린지와 만나는 것"이라며 "린지와 나는 한동안 친구사이로 있다가 지난 몇 달 사이에 매우 가까워져 현재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에게 "우리 두 사람을 응원해줘서 고맙고 우리들의 사랑 활동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평범한 커플로 우리의



타이거 우즈와 벤쿠버 올림픽 금 린지 본. /연합뉴스

관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본도 페이스북을 통해 "타이거 우즈와는 친구 사이였지만 지난 몇 달 사이에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열애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여기서 더 나갈 계획은 없다"고 말해 아직 결혼할 뜻은 없다고 듯하였다.

본은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스키 활

강에서 금메달을 따낸 세계적 스타로, 작년 11월 미국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우즈와 함께 시간을 보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애설에 훨씬 더 확실해졌다. 골프계에서는 우즈가 주약한 불운 스캔들과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재기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전국 우슈쿵푸선수권 금 7개 휩쓸어

## 총 메달 획득 12개

## 국가대표 8명 선발

광주시 우슈쿵푸협회(회장 김상덕) 소속 선수들이 지난 14~17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제25회 회장배 전국 우슈쿵푸선수권대회 및 2013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에서 금메달 7개 등 모두 12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광주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수 및 임원 10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전년도 대회 입상자와 시·도별 최우수 선수 1팀씩 출전해 국가대표에 선발되기 위한 열전을 벌였다.

체조 종목처럼 연기를 체점하는 '투로'(套路) 종목은 장권·남권·태극권 등 권법과 도술·검술·창술·곤술 등 병기기술 가운데 3개를 합산한 점수제로, 체급별 자유대련 경기인 '산타'(散打) 종목은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대회결과 투로종목에서 조계용이 장권(長拳)으로 1위를, 장옹호가 태극권(太極拳)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서희주가 장권으로 1위를, 이화윤이 남권(南拳)으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한 산타종목 -60kg급에서 광주 차정우와 이태성이 결승에서 맞붙어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었다. 산타종목 일반



왼쪽부터 서희성, 유동훈, 서희주, 이화윤, 서근식 코치, 장옹호, 조계용 선수. /광주일보

부 -70kg급에서 유영록이 1위를, 유정선이 3위를 기록했다. 산타종목 대학부 -70kg급에서는 김시우(조선대 1)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투로종목 고등부에서 서희성(동일전자 2)과 양승민(3)이 태극권과 장권으로 각각 1위를, 유동훈(3)이 남권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1~3위에 입상한 조계용·장옹호·차정우·이태성·유정선·서희주·이화윤 등 광주출신 8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광주시 우슈쿵푸협회 장동석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에 13명이 출전해 모두 상위 클래스에 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10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말레이시아 세계 우슈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관 우수(武術)는 다양한 중국무술을 현대적 스포츠 형식에 맞게 규정화한 경기종목이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범경기로 채택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 청소년스포츠클럽 출범 ... 초등학생 45명 선발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인재 조기발굴·육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동이 본격화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염주·종합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시 체육회 임직원과 광주시 및 시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광주 청소년 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 클럽) 출범식을 가졌다.

스포츠 클럽은 지난 2월말 운동능력 테스

트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45명의 초등 학교 1~6학년 학생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1년 창단해 올해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기초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체육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함과 동시에 단일화돼 있는 학교운동부의 선수 공급체계를 다변화해 선진형 선수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올해 스포츠클럽은 상반기 3종목(육

상·수영·테니스)을 운영한 후 하반기로 회원이 원하는 1개 종목을 선택해 희망에 따라 엘리트 선수로 전환할 가능하도록 종목별로 연계 육성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회원들은 연말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월드컵 경기장과 염주 수영장, 전천후 테니스장에서 육상·수영·테니스 기본기를 익히게 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 청소년스포츠클럽 출범 ... 초등학생 45명 선발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인재 조기발굴·육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동이 본격화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염주·종합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시 체육회 임직원과 광주시 및 시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광주 청소년 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 클럽) 출범식을 가졌다.

스포츠 클럽은 지난 2월말 운동능력 테스

트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45명의 초등 학교 1~6학년 학생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1년 창단해 올해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기초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체육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함과 동시에 단일화돼 있는 학교운동부의 선수 공급체계를 다변화해 선진형 선수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올해 스포츠클럽은 상반기 3종목(육

상·수영·테니스)을 운영한 후 하반기로 회원이 원하는 1개 종목을 선택해 희망에 따라 엘리트 선수로 전환할 가능하도록 종목별로 연계 육성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회원들은 연말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월드컵 경기장과 염주 수영장, 전천후 테니스장에서 육상·수영·테니스 기본기를 익히게 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 청소년스포츠클럽 출범 ... 초등학생 45명 선발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인재 조기발굴·육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동이 본격화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염주·종합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시 체육회 임직원과 광주시 및 시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광주 청소년 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 클럽) 출범식을 가졌다.

스포츠 클럽은 지난 2월말 운동능력 테스

트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45명의 초등 학교 1~6학년 학생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1년 창단해 올해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기초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체육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함과 동시에 단일화돼 있는 학교운동부의 선수 공급체계를 다변화해 선진형 선수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올해 스포츠클럽은 상반기 3종목(육

상·수영·테니스)을 운영한 후 하반기로 회원이 원하는 1개 종목을 선택해 희망에 따라 엘리트 선수로 전환할 가능하도록 종목별로 연계 육성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회원들은 연말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월드컵 경기장과 염주 수영장, 전천후 테니스장에서 육상·수영·테니스 기본기를 익히게 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 청소년스포츠클럽 출범 ... 초등학생 45명 선발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인재 조기발굴·육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동이 본격화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염주·종합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시 체육회 임직원과 광주시 및 시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광주 청소년 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 클럽) 출범식을 가졌다.

스포츠 클럽은 지난 2월말 운동능력 테스

트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45명의 초등 학교 1~6학년 학생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1년 창단해 올해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기초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체육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함과 동시에 단일화돼 있는 학교운동부의 선수 공급체계를 다변화해 선진형 선수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올해 스포츠클럽은 상반기 3종목(육

상·수영·테니스)을 운영한 후 하반기로 회원이 원하는 1개 종목을 선택해 희망에 따라 엘리트 선수로 전환할 가능하도록 종목별로 연계 육성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회원들은 연말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월드컵 경기장과 염주 수영장, 전천후 테니스장에서 육상·수영·테니스 기본기를 익히게 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 청소년스포츠클럽 출범 ... 초등학생 45명 선발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인재 조기발굴·육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동이 본격화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염주·종합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시 체육회 임직원과 광주시 및 시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광주 청소년 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 클럽) 출범식을 가졌다.

스포츠 클럽은 지난 2월말 운동능력 테스

트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45명의 초등 학교 1~6학년 학생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1년 창단해 올해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기초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체육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함과 동시에 단일화돼 있는 학